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우송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김 광 경

장안대학 의상디자인 계열

교수 이 금 실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 미 실

Dept. of Fashion Design, Woosong Information

Professor : Kwangkyung Kim

Dept. of Clothing Design, JangAn College

Professor : Keumsil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 Misil Chu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o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behavior i.e. individuality/self expression, body improvement, social approval, sex appeal. Measurements were included Rosenberg's self-esteem, Thompson'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and clothing behavio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98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KyongKi Province. The collection works were undertaken between the 15th of June and 30th of June, 200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ree dimension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were identified: internalization, social awareness, and concrete awareness.
- 2) Self-esteem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d an effect on clothing behavior i.e. individuality/self expression, body improvement, social approval and sex appeal. Social awarenes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d an effect on body improvement, social approval, and sex appeal.

주제어(Key Words): 자아존중감(self-esteem),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I.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의복은 신체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나 관심 및 가치관, 문화를 반영해 준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화된 교복착용시기를 벗어난 대학생시기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대학생시기에는 자아개념이 확고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해야하므로 정서적인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이 타인과 연관시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가 발생하며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기준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개인에게 전달되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신체적 외모는 대다수의 삶에서 중요한 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부분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며(김양진, 1992), 자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Davis & Rowold, 1982 ; 고

애란 · 김양진, 1996). 의복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신체의 연장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의복행동을 자아존중감과 사회문화적 태도를 연관시켜 분석하여봄으로써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부가적인 관심으로 경제수준과 체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 정의된다(Rosenberg, 1965). 자아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며, 다른 개체들과 분리된 하나의 실체로서의 개인의 존재에 대한 지각이다.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인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개념으로, 그 의미에 있어 평가적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므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김순구 · 박정순, 1990).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와 특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자기의 감정적 요소라 하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말한다. 사람들이 타인과 연관시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가 발생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감정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Morse & Gerger, 1976).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좋은 자질에 주목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좋지 못한 자질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한다.(Baumeister & Tice, 1985)

이선재(199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외관 및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순주와 윤학자(198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과시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심정은(199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의복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의복을 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적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상적인 신체적 아름다움은 특정 시대의 미적 기준과 일치하면서 변화해왔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Ehrenreich & English, 1978). 사회 속에는 '사회적 신체'가 존재하며(Mauss, 1935), 오늘날은 보편적이고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의 '이상적' 형태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Heinberg, 1996 ; Mazur, 1986). 우리는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지각하며 사회의 '이상적' 신체라는 형태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행동을 일으키

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같이 우리 사회에서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Heinberg 등, 1995). 즉 사람들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과 연관시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가 발생하며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선택을 하게 된다(Festinger, 1954).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사회비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이나 평가, 비교 기준에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정, 인지, 행동의 방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Miller(1982)는 신체적 매력은 사회 비교에서 언제나 두드러지는 속성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체적 매력은 대인지각,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의 자기 지각 차원은 사회 비교시 영향력 있는 비교 속성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Thompson 등(1999)에 의하면, 신체적 매력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날씬해져 가는 사회적 이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 촉진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회 비교 결과, 10대 소녀를 중심으로 한 여성에게 좀 더 자기 외모를 의식하게 하고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할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체적 외모는 사회 비교시 현저한 비교 속성이며 매스미디어는 높은 비교 기준을 전달하는 사회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부분이고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의 연장으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나 느낌은 개인의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정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5인의 의류학 전문가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예비조사과정을 거쳐 여대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며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의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0.85$ 이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Thompson등(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설문문항들(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SATAQ)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의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0.83$ 이었다.

3) 의복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행동 변인은 개성추구,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 성적 매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은 5문항씩 총 20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문항들과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1) 개성추구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 사용을 의미하며, 조선명(1999)의 3문항과 류은정(1998)의 1문항과 연구자가 제작한 1문항이 사용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의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0.60$ 이었다.

(2) 신체보완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감추고,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는 의복 사용을 의미하며, 조선명(1999) 2문항, 류은정(1998) 2문항, 연구자 제작 1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의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0.63$ 이었다.

(3) 사회적 인정

의복을 타인의 인정, 또는 취업기회나 인기 등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류은정(1998) 2문항, 연구자 제작 3문항으로 신뢰도는 $\alpha=0.67$ 이었다.

(4) 성적 매력

이성의 관심을 끌고, 섹시하게 보이려는 의복 사용을 의미하며, 조선명(1999) 2문항, 류은정(1998) 1문항, 연구자 제작 2문항으로 신뢰도는 $\alpha=0.59$ 이었다.

그 외에 부가적 관심으로 키, 체중, 경제 수준을 묻는 문항이 첨가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의 1, 2학년 여대생 498명(서울: 348명, 경기도: 150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총 550부를 배부·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98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7.5를 이용하여 빈도 분포, 백분율, 요인분석, 변량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1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주성분 분석방법,

<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

요 인	문 항	부하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총설명력
내면화 ($\alpha=0.79$)	· 패션잡지를 보면서 모델들과 나를 비교하곤 한다.	0.80	22.53%	54.83%
	·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곤 한다.	0.79		
	· 나는 수영복 모델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0.70		
	·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0.66		
사회적 인식 ($\alpha=0.65$)	·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0.75	16.22%	
	·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0.70		
	·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다.	0.66		
	·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들도 보기 괜찮다고 여겨진다.	0.56		
구체적 인식 ($\alpha=0.67$)	·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난다' 라고 여긴다.	0.79	16.08%	
	· 옷은 마른 모델들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	0.78		
	· 마른 여자가 나오는 뮤직 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마르고 싶어진다.	0.57		
	·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를수록 더 보기 좋다'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0.46		

요인의 회전은 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요인의 부하량이 낮은 1문항(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을 제외한 13문항에 대해 scree plotting을 실시하여 3개의 요인을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에는 다른 사람들 몸매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희망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면화로 명명하였고, 요인 2에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마른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들은 총 변량의 약 55%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으며 0.65-0.79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수치는 <표 1> 요인 밑에 제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이 선형결합되어 이루어진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추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요인점수는 도출된 3요인과 13문항간의 상관계수의 곱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2.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요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인 내면화, 사회적 인식, 구체적 인식이 의복행동에 미

<표 2>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개성추구			신체보완			사회적인정			성적매력		
	표준화된 회귀계수	T	R ²	표준화된 회귀계수	T	R ²	표준화된 회귀계수	T	R ²	표준 회귀*계수	T	R ²
자아존중감	0.20	4.28**	0.05	0.18	4.30**	0.23	0.09	2.22	0.24	0.17	3.83**	0.09
내면화	0.15	2.75**		0.33	6.86**		0.17	3.54**		0.25	4.65**	
사회적인식	0.08	1.61		0.27	5.94**		0.41	9.08**		0.15	3.10**	
구체적인식	-0.04	-0.73		-0.01	-0.26		-0.01	-0.12		-0.08	-1.63	

* p<.05 ** p<.01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적인 변수와 설명력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성추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내면화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몸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기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 성적매력에 공통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내면화, 사회적 인식이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자신의 몸매에 대하여 관심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외모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며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표 3>과 같이 경제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38.63, 중간인 집단은 33.41, 낮은 집단은 32.27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체격에 따른 의복행동 및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변인

피험자들의 체격은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를 근거로 구분하였다. 이 때 체중은 Kg, 신장은 m를 기준으로 하였다. 신체 질량지수가 20이하이면 저체중, 20-25는 정상, 25-30은 건강에 경도로 부담을 주는 상태, 30-40은 중등도, 40을 넘으면 고도의 건강 위험상태로 판정하였다.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체격의 구분은 실제로 5단계였으나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저체중이 65%, 정상이 33.1%, 건강에 경도로 부담을 주는 경우가 1.7%로 모두 3단계 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저체중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표집대상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이므로 현재의 마른 유행 체형에 맞추어 다이어트,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에 경도로 부담을 주는 경우는 해당되는 피험자가 너무 적어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체격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체격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오직 성적매력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기자신의 체격조건에 따라 의복으로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체중인 사람은 14.33, 정상체중은 13.59의 성적매력치를 보여 저체중인 사람이 좀 더 의복으로 자기 자

<표 3>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

변인	변량원	SS	DF	M.S.	F
자아 존중감	집단간	1415.83	5	283.17	9.84**
	집단내	13205.48	459	28.77	
	전체	14621.30	464		

** $p<.01$

<표 4> 체격에 따른 성적매력의 차이

의복행동	저체중		정 상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적매력	14.33	2.88	13.59	2.99	2.60**
개성추구	15.21	2.71	14.81	2.80	1.53
신체보완	17.36	2.80	17.54	2.91	-0.67
사회적인정	17.53	2.89	17.46	2.95	0.25

** $p<.01$

신의 섹시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신체 이미지가 비만군에 속하는 성인 여성은 여유있게 몸에 맞는 스타일의 의류 품목을 통해 신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 감으로서 바람직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려 한다는 박선영(1998)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체격에 따라 자아존중감 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기 자신의 몸매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는 내면화, 사회적 인식, 구체적 인식의 3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행동 중 개성추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내면화, 경제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 성적매력에 공통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내면화, 사회적 인식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별개의 변인으로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애란, 심정은(1998).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2, 33-41.
- 김순구, 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류은정, 임숙자(1998).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49-759.
- 박선영(1998). 성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착용 스타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명(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eister, R. H. & Tice, D. M. (1985). Self-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3, 450-46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einberg, L. J. (1996). Theories of body image: per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J. K. Thompson(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n integrative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pp.27-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uss, M. (1935). Les techniques du Corps. (the techniques of the body). *Journal de*

-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32.
Translated by Ben Brewster. 1973. *Economy and Society*, 2, 70-88. Kaiser(1990)에서 재인용.
- Mazur, A. (1986). U.S. trends infeminine beauty and over adap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2, 281-303.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ciousness, social anziety and attitudi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